

5. 京都・교토



1. 地域概観・지역개관

京都市伏見区淀の「唐人雁木旧趾」のところで、淀川をさかのぼってきた朝鮮通信使は、この地点より上陸し、陸路で京都へと向かいました。この上陸地点には茶屋が設けられ、一行はここで丁寧な接待を受けており、1655(明暦元)年の時は接待にあたった宗義成(そうよしなり)と淀藩主永井尚政(ながいなおまさ)によって、下船後、近くの富商の家で振る舞いを受けていました。その家は、生け垣に囲まれ、松の木と動物に似た石が池辺にある美しく整えられた屋敷であり、このとき、供された食事には馬乳・葡萄・大きな栗・み

교토시 후시미구 요도에 「당인안목구지」표가 있는데, 요도강을 거슬러 올라온 조선통신사 일행이 상륙해서 육로를 통해 교토로 향했다.

이곳에는 찾 집을 마련해 일행을 정중하게 대접했는데, 1655년에는 접대 담당인 소 요시나리와 요도번주 나가이 나오마사의 요청을 받고, 하선 후 근처 부호의 집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 집은 산을 타리에 둘러싸였으며, 연못가에 소나무와 동물을 닮은 돌이 있는 아름다운 저택이었다. 이때 제공된 식사에는 마유·포도·큰 밤·신선한 배·꽃감 등이 있었다」고 종사관이자 유수한 시인이었던 남용익(호는 향아곡)은 『부소록』에 적고 있다.

ずみずしい梨・干し柿などがあつた、と従事官であり有数の詩人でもあつた南龍翼(ナム・ヨンイク、号は壺谷)は『扶桑録』に書き残しました。以後一行は鳥羽街道を北上しました。途中、実相寺(じっそうじ)が休憩場所とされ、正使・副使・従事官の三使以下、衣冠を改めて入洛に備えました。京都に入った通信使は、本国寺に宿泊した場合、油小路を北上出発は松原通を東に入り室町通まで行き、室町通を今度は北に三条通まで上がり、三条通を東へ折れ、東海道の入り口である三条大橋から江戸へと向かいました。江戸からの帰路においては、三条通から繩手通(大和大路)を南へ下って方広寺大仏殿前を通りました。これは1724(享保9)年まで大仏殿前で対馬藩主主催の招宴があつたためであり、大仏殿からの帰路は、五条通(現、松原通)まで北上して、寺町通→四条通→室町通→松原通の順で本国寺に入りました。(本国寺はのちに本圀寺と改称した) 1636(寛永13)年以降通信使は、1719(享保4)年の本能寺宿泊を除けば、すべて本圀寺を宿舎として京都に滞在しました。宿館であつた本圀寺は、当代の文化人にとっては格好の交流の場であり、1637(寛永14)年に通信使が江戸からの帰りに立ち寄つた際、漢詩人の石川丈山(いしかわじょうざん)が当寺を訪れ、一行と筆談や詩文の応酬を行っていました。『洛中洛外図屏風』のいくつかには、通信使一行が二条城の前に行く光景を描いています。しかし、通信使を扱った記録類には、二条城に立ち寄つた記事はありません。初めの3回は大徳寺が宿館であつたため、あるいはその時の情景

이후 일행은 도바가도를 복상했다. 도중에 실상사(짓소지)를 휴식 장소로 삼아, 정사·부사·종사관의 삼사 등이 교토로 들어가기 전에 옷차림을 정돈했다.

교토로 들어간 통신사는, 본국사(혼고쿠지)에서 숙박한 경우, 아부라고지로를 복상했다. 마츠바라길을 동쪽으로 들어가 출발하여 무로마치길까지 간 후, 이번에는 북쪽으로 산조길까지 올라가, 산조길에서 동쪽으로 꺾어 도카이도 입구인 산조다리를 이용해 에도로 향했다.

에도에서 돌아올 때에는, 산조길에서 조테길(야마토대로)를 남쪽으로 내려와 방광사(호코지) 대불전 앞을 지나갔다. 이것은 1724년까지 대불전 앞에서 대마도번주가 주최하는 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불전에서 돌아오는 길은, 고조길(현 마츠바라길)까지 복상한 후, 테라다마치→시조→무로마치→마츠바라길 순으로 거쳐 본국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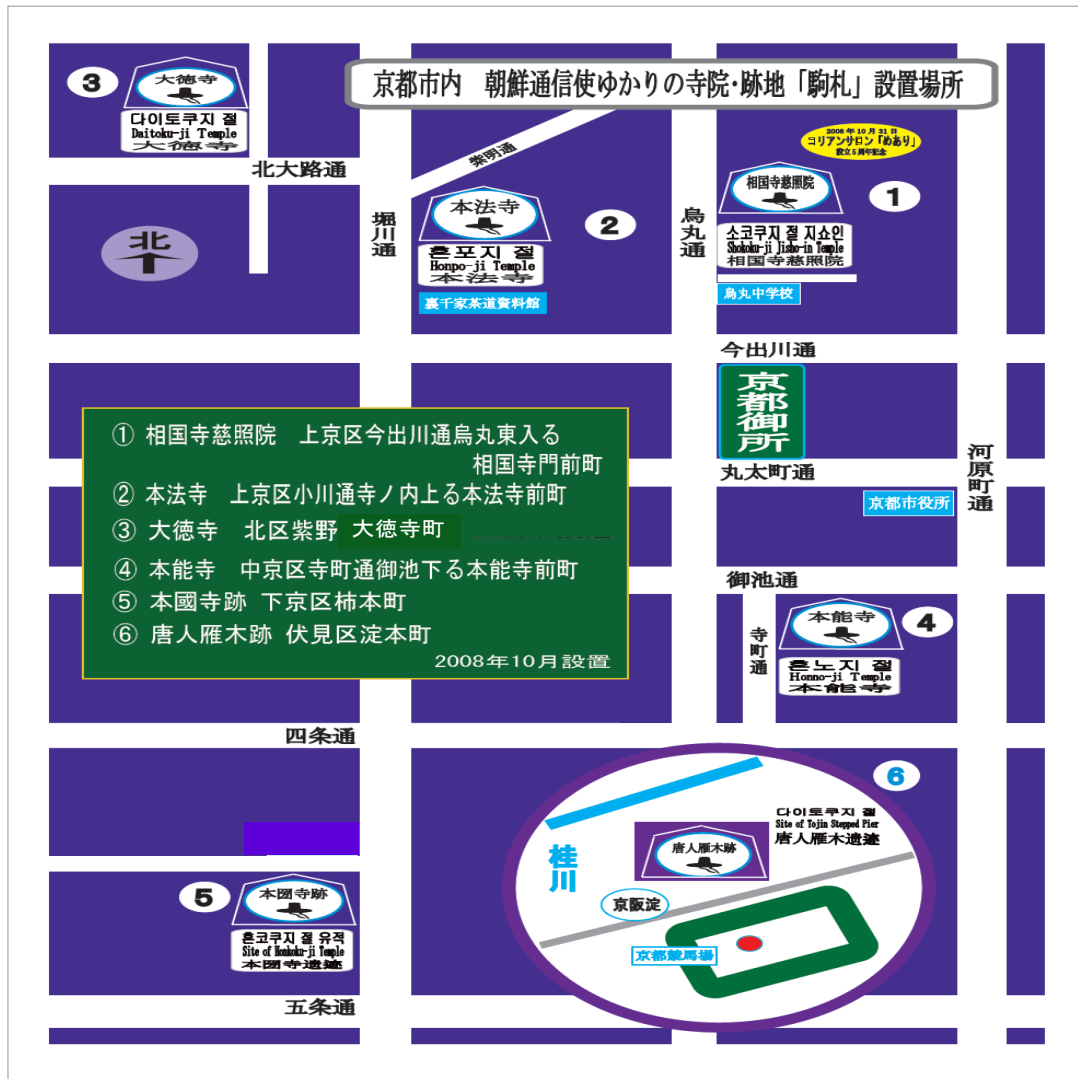
1636년 이후, 통신사는 1719년의 본능사(혼노지) 숙박을 빼고 모두 본국사에서 머물렀다.

숙소인 본국사는 당대의 지식인에게는 최고의 교류의 장이었다. 1637년에 통신사가 에도에서 돌아올 때, 시인 이시카와 조잔이 통신사 일행과 필담과 시문을 주고 받았다. 몇몇 『낙중낙외도병풍』은 통신사 일행이 이조(니조)성 앞을 지나가는 광경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를 다룬 기록 중에는 이조성에 들른 기록이 전혀 없다. 1617년부터 세 번의 통신사는 대덕사(다이토쿠지)가 숙소였기 때문에 그때의 정경을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본국사와 마찬가지로 대덕사에서 1625년의 통신사가 에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지로 있던 에즈키소우간이 삼사에게 차와 술을 내어 환대했고,

を描いたものかと推察されます。本圀寺と同様に大徳寺でも、1625(寛永2)年、江戸より帰途の際、当寺の住持であった江月宗玩(こうげつそうがん)が三使に茶酒を呈して歓待し、江月の五言絶句に三使が応えるなどの文化交流が行われました。

에즈키의 오언 절구에 삼사가 운을 받아 시를 짓는 등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2. 関連人物・관련인물

1. 別宗祖縁(벧슈소엔)

江戸幕府は1636(寛永13)年に対馬島藩主による「国書偽造」の発覚ののち、予防策として京都五山の碩学僧侶を輪番制で対馬に送り、対朝鮮外交事務や文書の作成を任せました。慈照院は他の塔頭より多い通算6回の輪番僧を出しました。別宗祖縁は対馬と江戸の間を通信使に同行して旅を供にしました。慈照院に残っている記録によれば、彼は加賀国金沢城下の出身で、慈照院に入った後、南禅寺の傘下の光雲寺で印可状をもらいました。

1682(天和2)年の朝鮮通信使が本圀寺で宿泊する際、製述官成琬、副使裨將 洪世泰などと詩文を交わした彼は1700(元禄13)年、対馬藩の以酌庵に輪番僧として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その間、朝鮮通信使の来日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朝鮮との外交事務を担当し、朝鮮に送られる文書の作成にかかわりました。

1711(正徳元)年にも、江戸までの随行を命じられた祖縁は大坂で一行を出迎えました。1711年の通信使は新井白石の聘礼改革のため、前例と異なったことが多くあり、もめ事が何度も発生したため、彼もまた苦労したと思われま。

ただ、そういう中で、彼と通信使一行との筆談は多くなり、人と人の交流は深くなりました。慈照院に現存する『韓客詞章』(卷4)は通信使一行と交わした詩文が収められています。

에도막부는 1636년에 대마도번주에 의한 「국서위조」가 발각된 후, 예방책으로서 교토 고산(五山: 교토의 선종 계열 다섯 개의 사찰을 지정해 전국의 사찰을 관리하도록 한 제도)의 석학 승려를 순번제로 대마도번으로 보내, 조선과의 외교 사무와 문서 작성을 맡겼다. 자조원(지쇼인)은 상국사(쇼고쿠지)에 소속된 다른 작은 암자보다 많은, 통산 6회에 걸쳐 승려를 파견했다. 그 중에서 2번째로 대마도에 간 인물이 벧슈소엔이다. 자조원에 남아 있는 기록에 의하면, 그는 가가국(加賀国) 가나자와성 아래 도시 출신으로, 자조원에 들어간 후 남선사(난젠지)에 속한 광운사(고운지)에서 승려의 인가장을 받았다. 1682년의 조선통신사가 본국사(혼고쿠지)에 머물 때, 제술관 성완, 부사비장 홍세태 등과 시문을 나눈 그는 1700년에 대마도번의 이정암(이테이안)에 가게 되었다. 그가 가 있는 2년간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은 없었으나, 조선과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며 조선에 보내는 문서를 작성했다. 1711년에도 에도까지 통신사를 수행할 것을 명령받은 소엔은 오사카에서 일행을 맞이했다. 이때의 통신사는 아라이 하쿠세키의 빙례개혁(聘礼改革)으로 인해 전례와 다른 것이 많았고, 의견 대립이 몇 번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그 역시 고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런 와중에 그와 통신사의 필담은 많아졌고, 개인적인 교류는 깊어졌다. 자조원에 현존하는 『한객시장(韓客詞章)』(4권)에는 통신사 일행과 나눈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소엔은 이 교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714년에 57세로 사망했다.

2. 藤原惺窩・후지와라 세이카

藤原惺窩は、戦国時代から江戸時代初期にかけて活躍した儒学者で、初め相国寺に入りましたが、のちに寺を出て朱子学を究めました。京都五山僧の教養の一部であった儒学を体系化し独立させ、「近世儒学の祖」とも称される人物です。徳川家康にも儒学を教えたと言えられており、家康には仕官も要請されましたが辞退し、弟子の林羅山を推薦しました。主な弟子に林羅山(はやしらざん)、那波活所(なばかっしょ)、松永尺五(まつながせきご)堀杏庵(ほりきょうあん)を惺窩門四天王と称しています。

藤原惺窩は1590年の朝鮮通信使一行のうち従事官である許箴(ホ・ソン)に出会ったことで儒学に関する関心が高まり、1596年ごろからは、自分の体と心をコントロールして人を治める修己治人を課題として、儒学者としての自覚を明確に持ちました。彼は中国へ渡り宋代より登場した朱子学を直接学ぶために明に留学しようとしたましたが失敗に終わりました。

その後、丁酉再亂の時に捕虜になった朝鮮人儒学者姜沆(カン・ハン)との出会いは、惺窩の人生に多大な影響を与えました。この出会いは播磨龍野の城主である赤松広通(あかまつひろみち)がかかりました。広通は、豊臣秀吉に従った武将で、1585年には但馬国竹田城城主となりました。彼は惺窩に感服して支援を惜しまなかった人物で、姜沆の帰国を物心両面で助けたりもしました。しかし関ヶ原の戦い後、西軍として参戦した赤松広通は自殺

후지와라 세이카는,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 전기에 걸쳐 활약한 유학자다. 원래는 상곡사(쇼코쿠지)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환속하여 주자학을 연구하였다. 교토 고산 승려의 교양 중 하나였던 유학을 체계화해 경학파로 독립시켜, 근세 유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계도 유학을 강연했다고 전해지며, 이에야스로부터 자신을 섬기도록 요청받았으나 거절하고 제자인 하야시 라잔을 천거했다고 한다. 대표적 문하생으로 하야시 라잔, 나바 갓쇼, 마즈나가 세키고, 호리 교우안이 있고, 이들 4인을 “세이카문 4천왕”이라 부른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히데요시 시대인 1590년 조선통신사 일행 가운데 종사관인 허성을 만나면서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596년경부터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남을 다스리는 수기치인을 과제로 삼아 유학자로서의 자각을 명확하게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 송대 이후 등장한 주자학을 직접 배우기 위해 명나라로 유학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정유재란 때 포로가 된 조선인 유학자 강항과의 만남은 세이카의 인생에 한 획을 그었다. 이 만남은 하리마 다쓰노의 성주인 아카마쓰 히로미치 덕분에 가능했다. 히로미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른 무장으로, 1585년에는 다지마국 다케다성 성주가 되었다. 그는 세이카에게 감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로, 강항의 귀국을 물심양면으로 돕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키가하라 전투 후 서군으로 참전한 아카마쓰 히로미치는 자살하였고, 후지와라 세이카는 교토 북쪽 교외의 이치바라에 은거하게 되었다.

し、藤原惺窩は京都の北の郊外、市原に隠居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藤原惺窩と姜沆の交流は3年間続きました。姜沆が残した『看羊録』によると、彼らが深い交流ができた理由は、戦争を通じて家族を失う痛みと戦乱の惨状を目撃し、感ずるところが大きかったためだといいます。『看羊録』には惺窩が豊臣秀吉の戦争について"明と朝鮮が逆に日本を占領してほしい"という言葉さえ残したと記されています。

姜沆との出会いをきっかけに、惺窩は儒学者に転身しました。これは、それまで禅僧の教養水準にとどまっていた儒学を一つの学問として独立させたことに意義があると評価されています。

세이카와 강항의 교류는 3년 동안 이어졌다. 강항이 남긴 『간양록』에 따르면, 이들이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을 통해 가족을 잃는 아픔과 전란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공감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었다. 『간양록』에는 세이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을 두고 “명과 조선이 거꾸로 일본을 점령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강항과의 만남을 계기로 세이카는 유학자로 변모하였다. 이는 그때까지 선승의 교양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독립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藤原惺窩肖像・후지와라 세이카 초상



姜沆肖像・강항 초상

3. 疲れ取りの宿・ 숙소

1. 本圀寺・ 혼고쿠지

日蓮宗の寺で元の名は本国寺です。1685(貞享2)年、テレビの史劇で知られる水戸黄門こと徳川光圀の名から一字をもらって、本圀寺と改名しました。

1719年の本能寺の宿泊以外、朝鮮通信使が京都に滞在した7回の宿舎として利用したのはすべてこの本圀寺です。

通信使が泊まる時には、交流を求めてたくさんの方が訪問しましたが、特に1636(寛永13)年の使行が江戸から戻る時、藤原惺窩(ふじわらせいか)の門人で漢詩人の石川丈山(いしはらじょうざん)が本圀寺を訪れ、一行の製述官である權杖(クオン・シク,号は菊軒)と筆談や詩文の交流を行っていたことも知られています。

1969年、寺の移転が決められ、1971年には京都市山科に移転しました。しかし、京都市下京区の寺跡には、京都市が立てた説明の立札があり(下京区堀川通)、当時の位置がわかります。

일련종의 절이며 원래 이름은 혼고쿠지(本国寺)다. 1685년, 유명한 TV 사극 미토 고몬으로 알려져 있는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의 이름 중 한 글자를 받아서 本圀寺(국가 圀로 바뀜)로 개명했다. 1719년에 혼노지에 숙박했던 것을 제외하고, 1636년 이후 조선통신사가 교토에 체재한 7회의 숙소로서 이용된 것은 전부 이곳 본국사였다.

조선통신사가 머무를 때면 교류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특히, 1636년에 일행이 귀국할 때,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이며 한문 시인이었던 이시카와 조잔이 방문해 일행의 제술관이었던 권칙(호는 국헌)과 필담과 시문을 나누는 것이 알려져 있다.

1969년에 절의 이전이 결정되고, 1971년에 교토시 교외의 야마시나로 이전했다. 하지만 교토시 시모쿄구에 있는 절의 옛 터에는, 교토시가 세운 안내문 간판이 남아 있어, 당시의 위치를 알 수 있다.



移転された山科所在の本国寺仁王門・ 이전된 야마시나 소재 혼고쿠지 인왕문



京都市下京区所在本園寺跡の京都市の立札・ 교토시 시모교쿠 소재 혼고쿠지터교토시 안내문



移転された山科区所在の本国寺本堂・ 이전된 야마나시 소재 혼고쿠지 본당

2. 本能寺・혼노지

1719(享保4)年に朝鮮通信使の宿舎となりました。元は宿舎で利用していた本圀寺が損傷していたため、大津の本長寺を宿舎とし、本能寺は休憩場所として利用する予定でした。しかし、淀川をさかのぼった船から降りた時、対馬藩の役人が誤って、朝鮮通信使が使う馬を先に送ってしまい、出発がだいぶ遅くなりました。そこで、急に本能寺が宿舎になったようです。本能寺の人々がどれほど大変だったかは、よく想像できます。それでも、江戸からの帰り道では一行のため、盛大な宴会が催され、朝鮮通信使一行も本能寺について、“壮麗なことは比すべきものがない”と述べました。

1719년 조선통신사의 숙소였다. 원래 숙소로 이용되고 있었던 본국사(혼고쿠지)에 문제가 있어서 오쓰의 본장사(혼초지)가 숙소로, 본능사(혼노지)는 휴식장소로 이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요도강을 거슬러 오른 배에서 내렸을 때, 대마도번의 수행인이 실수로 조선통신사들이 쓸 말을 먼저 보내버려서 출발이 크게 늦어졌다. 그래서 급하게 본능사가 숙소가 되었다고 한다. 본능사(혼노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쉽게 상상이 간다. 그래도 에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행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고 한다. 또, 조선통신사 일행도 본능사에 대해서 “장대하기가 비할 바 없다”는 기록을 남겼다.



本能寺に京都市が立てた朝鮮通信使宿泊の札・ 혼노지와교토시안내문

3. 大徳寺・다이도쿠지

大徳寺は文禄・慶長の役の直前に来た朝鮮の使節団を含め、4回、江戸時代だけを数えると3回、宿舎として利用しました。1625年、朝鮮通信使が江戸から帰る時、当時の住職であった江月宗玩(こうげつそうがん)が三使にお茶とお酒で歓待し、江月の作った漢詩に三使が応えるなどの文化交流が行われました。

また、京都市が立てた立札には、"戦で朝鮮から連行されてきた被虜人が宿館を訪れ、帰国を促す通信使の随員達から家郷の消息を聞いて涙した"という逸話記されています。

대덕사(다이도쿠지)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직전에 파견되었던 조선의 사절단을 포함해서는 4회, 조선통신사만을 세웠을 때는 3회 숙소로 이용되었다. 1625년, 조선통신사가 에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시의 주지였던 고게츠소우간(江月宗玩)이 삼사에게 차와 술을 대접했으며, 고게츠의 오언 절구 시에 삼사가 답하는 등의 문화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또, 교토시가 세운 안내문 간판에는 "전쟁(임진왜란)때 조선에서 끌려온 후 교토 부근에 살게 된 포로들이 이곳 숙소에 방문해, 귀국을 서두르는 통신사 수행원들로부터 고향과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적혀 있다.



大徳寺門前と京都市の立てた札・다이도쿠지 교토시안내문



大徳寺仏殿と法堂・다이도쿠지 불전과 법당

4. 残された遺跡・남겨진 유적

1. 三条大橋・산조대교



京都の東を流れている鴨川。京都に宿泊した朝鮮通信使は、この鴨川を渡って京都から大津に向かいました。江戸まで行った10回全て、三条にある大橋を渡りました。

擬宝珠は伝統的な建築物の装飾で、橋などの柱の上に設けられている飾りです。ネギの花に似ていることから「葱台(そうだい)」とも呼ばれます。

三条大橋の擬宝珠は朝鮮通信使が橋を渡った当時のものが残っていて、当時の擬宝珠を見て感心し、大津に行く通信使を想像させます。

교토 동쪽을 흐르는 가모강. 교토에서 숙박한 조선통신사는, 이 가모강을 건너 교토에서 오쓰로 향했다. 에도까지 갔던 10번 모두, 산조에 있는 대교를 건넜다.

의보주(기보시)는 전통적인 건축물의 장식으로, 다리 등의 기둥 위에 있는 장식이다. 파꽃과 닮았기 때문에「총대」라고도 불린다.

산조대교의 의보주는 조선통신사가 다리를 건넌 당시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의보주를 보고 감탄하며 오쓰로 향했던 조선통신사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三条大橋の現在と当時の遺物遺跡の説明文
산조대교 현재 모습과 당시의 유물, 유적 설명문

2. 伏見人形の朝鮮通信使・후시미인형의 조선통신사

江戸時代の末期から明治時代にかけて、伏見の稲荷神社を参拝する人向けのお土産の人形の中に、朝鮮通信使をモデルにしたものがあります。

この人形から朝鮮通信使の様子がわかるところは、被った帽子である巾(コン)・上着であるトゥルマギ・靴の部分です。手に持っている扇は日本風の軍扇ですが、当時の日本人が履くことがなかった靴からわかる人物像は朝鮮人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現在までこの伏見人形を作っているところは、伏見区にある「丹嘉」だけです。一方、この「丹嘉」の創業以来、今も運営している大西家には『天和・正徳・享保朝鮮人來聘公用事』という文書が残っていました。他に嵯峨人形にも朝鮮通信使を形どったものがあります。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서, 후시미이나리 신사를 참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물용 인형 중에 조선통신사를 모델로 한 것이 있다.

이 인형에서 조선통신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머리에 쓴 모자인 건·상의인 두루마기·신발 부분이다. 손에 든 부채는 일본풍의 군대 지휘용 부채이지만, 당시의 일본인이 신지 않았던 형태의 신 등으로 알 수 있는 인물상은 조선인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이 후시미인형을 만들고 있는 곳은 후시미구에 있는「탄가(丹嘉)」라는 가게 뿐이다. 한편, 이「탄가(丹嘉)」를 시작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오니시 가문에는『천화·정덕·향보 조선인 내빙 공용사(天和·正徳·享保朝人來聘公用事)』라는 문서가 남아 있었다. 별도로 사가인형에도 조선통신사를 모습을 취한 것이 있다.



교토시 탄가의 후시미인형
탄가(丹嘉)의 공식 홈페이지



3. 本法寺・혼포지

丁酉の戦いがおわり日本軍が朝鮮から引き揚げたあと国交回復を軌道に乗せるために朝鮮から派遣された非公式の使節を「探賊使」といいます。

「探賊使」は国交回復と被虜人を連れ戻すための交渉をしに来た使節団です。この時、朝鮮の使節の代表は松雲(泗溟)大師(ソウウンデサ)惟政(ユジョン)という僧侶で、倭乱の時には僧兵として活躍したひとであり、仏教や儒教の学問でも有名な人でした。彼がこの寺に滞在する間、京都五山の僧侶が訪問して、詩文の交流をしたり、仏教や儒教の知識について筆談問答を重ねました。彼と徳川家康の会談はよい結果をもたらし、1607年の国交回復や以後の朝鮮通信使の派遣に繋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정유재란이 끝나 일본군이 조선에서 물러난 뒤 국교회복을 꾀도에 올리기 위해서 조선에서 파견된 비공식인 사절을 「탐색도적사」라고 말한다.

「탐적사」는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국교 회복의 의사를 확인하고 포로를 송환하기 위해 일본에 왔던 사절단이다. 이 때, 조선의 대표는 송운(사명)대사 유정이라는 승려로, 전쟁 때에는 의병장으로 활약한 인물이기도 하며, 불교와 유학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가 교토에 체재하는 동안, 교토 고산의 승려가 방문해 불교와 유학의 지식에 대한 필담을 나누었다. 그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회담은 좋은 결과를 냈고, 1607년의 국교회복과 이후의 조선통신사 파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松雲大師が滞在した本法寺大門・송운대사가 체재한 혼포지 대문



本法寺法仏塔・혼포지 불탑



本法寺の京都市立札・혼포지교토시안내문



本法寺法堂・혼포지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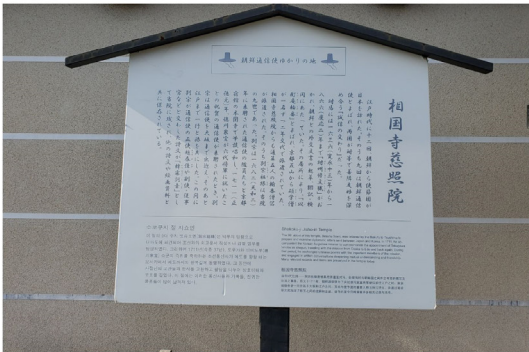
本法寺扁額・혼포지 편액

4. 相国寺の貼りませ屏風・쇼고쿠지하리마제 병풍

相国寺の慈照院には朝鮮通信使が残した漢詩や絵画等が多く残っています。これは慈照院の僧侶が朝鮮通信使と深い交流があったからです。元々江戸幕府は京都五山の僧侶を輪番で対馬藩に送り、朝鮮との外交事務の担当や朝鮮通信使の通訳・案内役として江戸までの同行をさせました。慈照院でも5回、僧侶を派遣したことがあり、その中でも、住職別宗祖縁(べっしゅうそえん)は1711年の朝鮮通信使の正使である趙泰億(チョ・テオク)と深く交流しました。祖縁が趙泰億など使節団の主だった人びとと取り交わした詩文などの遺品が、数多く残されています。また、江戸までは行かなかった1811年の朝鮮通信使が残した絵や詩文も集めて貼った「はりませ屏風」も残っています。

쇼고쿠지에 속한 작은 암자 지쇼인에는 조선통신사의 한시와 그림 등이 다수 남아 있다. 이것은 지쇼인의 승려가 조선통신사와 깊이 교류했기 때문이었다. 원래 에도막부는 교토 고산의 승려를 순번제로 대마도변에 보내, 조선과의 외교 사무 담당을 맡기고, 조선통신사의 통역·안내역으로 에도까지 동행시켰다. 지쇼인에서도 5번 승려를 파견한 일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9대 주지였던 벳슈소엔은 1711년 조선통신사의 정사였던 조태억과 깊이 교류했다. 소엔이 조태억 등 사절단의 주요 인물들과 나누는 시문과 그림 자료 등의 유품이 지금까지 다수 남아 있다. 또, 에도까지는 가지 않았던 1811년 조선통신사가 남긴 그림과 시문을 모아서 만든 「하리마제 병풍」도 남아 있다.





相国寺慈照院 · 쇼코구지 지쇼인

5. 実相寺・짓소지

実相寺は船から降りて鳥羽街道を北上する朝鮮通信使の休憩場所でした。實相寺沿革によると5回、もしくは6回、ここで一行は衣冠を改めて入洛に備えました。

江戸時代このあたりは京都を控えた近郊農村地帯で、水田のほか、木綿や野菜の栽培も盛んで、通信使が書き残した記録にも行き届いた土地利用が目にとまったとの記事が見られます。

짓소지(실상사)는 배에서 내려 도바가도를 북상한 조선통신사의 휴게소였다. 절의 연혁에 의하면 이 곳에서 일행이 옷차림을 정돈하고 교토로 들어갈 준비를 한 것은 5회 또는 6회라고 한다.

에도시기 이 근처는 교토를 목전에 둔 농업지대였는데, 논농사 이외에 면화와 야채 재배도 활발했으며, 조선통신사도 빈틈없는 토지 이용이 눈에 띄었다는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実相寺法堂・짓소지 법당